

〈경화연〉의 번역서 〈제일기언〉을 통해 본 홍희복의 번역 인식*

김경미**

— <차 례> —

1. 서론
2.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3. <제일기언> 번역을 통해 본 홍희복의 번역 인식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청의 이여진(李汝珍, 1763~1830)이 창작한 <경화연(鏡花緣)>의 한글 번역서 <제일기언(第一奇諺)>의 번역 양상 분석을 통해 번역자인 홍희복(洪羲福, 1794~1859)의 번역 인식을 살펴보고, 당시 번역자의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이다. <제일기언>의 원작인 <경화연>은 형식적인 면에서 여행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인물들을 통해 새로운 여성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홍희복은 원작이 갖는 이러한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번다한 곳은 덜어내고, 간략한 곳은 첨가하며, 풍속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부분은 윤색해서 번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 방향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홍희복이 번역자로서 타국의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번역 불가능한 것이 있으며,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당시 조선의 소설들이 대동소이한데다가 그 내용도 부녀자들이 익히 볼 만한 아니라고 비판한 뒤 그러한 소설들과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경화연>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번역서를 <제일기언>이라 하여 언문소설 가운데 뛰어난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작품이라고 하였다. 홍희복은 번역소설을 통해 당시 소설 창작과 독서에 새로운 자극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홍희복은 당시 소설문화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대안이 될 만한 작품을 선택해서 번역했으며,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희복은 번역자로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제일기언, 경화연, 번역자, 번역 인식, 홍희복

1. 서론

한자와 한글이라는 이중 언어 체계를 중심으로 문자 생활이 이루어진 조선사회에서 번역은 중국과 조선, 남성과 여성, 상층문화와 하층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문화를 소통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조선시대 문헌 가운데 한글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한글로 된 번역 자료는 상당한 분량에 이르며, 소설의 경우, 왕실에서 번역한 낙선재본 소설과 같은 방대한 분량의 번역 작품을 비롯해서 개인들이 번역한 소설들을 합하면 번역소설의 비중은 적지 않다. 중국소설의 경우 조선시대에 유입된 중국소설은 460여 종이며 그 중 번역된 소설은 약 70여 종에 이른다.¹⁾ 여기에 조선 문인이 창작한 한문소설의 언역(諺譯), 한글소설의 한역(韓譯)을 포함하면 조선시대 소설에서 번역소설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²⁾

1) 김영, 『조선후기 명청소설 번역필사본 연구』, 學古房, 2013, 15쪽, 현존하는 중국소설 번역 작품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70여 종이지만, 현전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70여 종 이상이었을 것으로 본다. 민관동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중국소설 번역 작품은 대략 72종이다. 민관동, 『번역본 중국고전소설의 발굴과 성과』, 『중국어문학지』 40, 2012, 165쪽.

2) 조선 문인이 쓴 한문소설의 한글 번역, 한글소설의 한문 번역도 번역 작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성 지식인의 언어이고, 공식 언어였던 한문으로

조선시대 번역소설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의 번역, 번안 양상을 통한 한중 소설 비교 연구를 비롯해서 중국소설의 조선 유입 과정이나 서지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번역자의 존재는 주목되지 못했다. 이는 조선시대 번역소설의 번역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의 이여진(李汝珍 1763~1830)이 창작한 <경화연(鏡花緣)>을 홍희복(洪羲福, 1794~1859)이 번역한 <제일기언(第一奇諺)>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홍희복의 번역 인식을 보고자 한다. <제일기언>을 선택한 이유는 역자인 홍희복이 서문을 통해 당대 소설 창작과 독서 경향이나 번역 작품 선택의 이유 및 자신의 번역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제일기언>은 원작에 종속된 번역서에 그치지 않고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인식, 나아가 소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번역자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규복은 <제일기언>을 처음 소개하고 번역 양상을 살핀 뒤, 홍희복의 번역관을 언급하면서 홍희복을 번역문학가로 규정할 만하다고 보았다.³⁾ <제일기언> 교주본이 나온 뒤⁴⁾ 한국문학, 중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경화연>과 <제일기언>의 비교 연구 및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영호는 직역 및 의역, 음독이 부가된 운문 번역, 중국어의 음차역 및 한자어의 상용, 축역 및 개역, 첨역 및 생략 등으로 나누어 살핀 뒤 <제일기언>은 번역자의 창의성이 상당히 개입 반영된 편

쓰는 글과 주로 여성, 하층민의 언어였던 한글로 쓰여진 글 사이에는 젠더, 계급 경계로 인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면 이것도 번역 작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번역본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이본의 하나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다.

3)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1984, 73~100쪽.

4) 정규복, 박재연역,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경화연>은 총 100회로 구성되었지만 <제일기언>은 78회까지 번역만 남아 있으며, 그 중 37, 38, 39, 40, 48, 49회는 결본이다.

역소설로 평가했다.⁵⁾ 서경희 역시 <제일기언>이 <경화연>의 수동적인 번역서가 아니라 역사 흥희복의 의식이 개입된 텍스트로서, ‘여성’이라는 두드러진 표상을 애써 외면하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박학’적 효용과 정통성 확립이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한다고 보았다.⁶⁾ 이와 달리 이광훈은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연구에서 흥희복이 유가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가졌으며,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이여진의 생각에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⁷⁾ 주숙하는 번역 작품을 단지 원작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적 가치로서 인정하는 역문중심론(target-oriented)의 입장에서 번역 대상의 선택, 번역 작품의 재구성, 번역 책략 등을 분석한 뒤 흥희복을 자신만의 문인적 주체의식을 가진 번역자로 평가했다.⁸⁾ 이상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흥희복이 원작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형식이나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제일기언>이 <경화연> 전편을 축자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앞서 연구자들이 밝혔듯 흥희복은 번역 과정에서 생략과 첨가, 개역과 축역을 했고, 소주제에 따라 권을 나누었다.⁹⁾ 그러나 번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축자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어 원작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 글은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을 살피고, 서문을 분석한 뒤 흥희복의 번역인식을 드러내

5) 정영호, 『<鏡花緣>과 한글 역본 <第一奇諺>의 비교 연구』, 『中國小說論叢』 26, 278~291쪽.

6) 서경희, 『<鏡花緣>의 여성인식과 <제일기언>의 수용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174~184쪽.

7) 이광훈, 『<鏡花緣>의 韓譯本 『第一奇諺』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6쪽, 101쪽.

8) 주숙하, 『文人の 主體意識의 再現-<第一奇諺>의 翻譯者인 洪義福을 中心으로』, 『중국소설논총』 35, 2011, 285~298쪽.

9) 주숙하는 현재 남아 있는 총 72회를 소주제별로 분류하여 20권으로 나눈 것으로 보았다. 주숙하, 위 논문, 295~296쪽.

고자 한다.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앞서의 연구들에서 이루어졌으나 번역인식을 밝히기 위해서는 번역 양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번역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번역 양상을 통해 홍희복의 번역인식을 드러내고, 홍희복을 번역자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조선시대 번역자의 위치를 기능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를 위한 텍스트로는 張友鶴 교주 <경화연>을 선택했으며¹⁰⁾, 문현선 역 <경화연>¹¹⁾을 참조하였다.

2.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

<경화연>은 총 100회로 구성된 장회소설로 시대적 배경은 무축천 시대이다. 그 내용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1~6회)은 百花仙子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경위, 둘째 부분(7~40회)은 당오, 임지양, 다구공이 배를 타고 다니며 견문한 내용과 당오의 출가 과정, 셋째 부분(41~53회)은 백화선자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태어난 당오의 딸 당소산이 해외에 나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 넷째 부분(54~94회)은 무축천이 실시한 女科에 응시하여 급제한 100명의 재녀들이 이틀 동안 연회에서 놀이를 하고 헤어지는 내용, 다섯째 부분(95~100회)은 무축천을 토벌하고 당나라 왕실을 회복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좀 더 큰 틀로 보면 전반부는 당오, 임지양, 다구공이 해외로 다니며 많은 나라를 견문하는

10) 이여진, 『鏡花緣』, 人民文學出版社, 1987, 이광훈에 의하면 張友鶴이 校注한 이 판본은 북경대학도서관 소장(馬廉隅卿舊藏) 청 가경 23년(1818) 蘇州 原刻本을 저본으로 1955년에 북경에서 제1판이 출간되었다. 홍희복이 어떤 판본을 보고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818년은 홍희복이 번역하기 전이므로 이 판본을 선택했다. 이광훈, 위 논문, 29쪽.

11) 이여진, 『경화연』 1, 2, 문현선 역, 문학과지성사, 2011.

내용이고 후반부는 여과에 급제한 재녀들이 시를 짓고, 학예에 대한 문답과 의론을 펼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기언>은 총 100회 중 78회까지 번역하였으며, 이 가운데 37회, 38회, 39회, 40회, 48회, 49회가 결락되어 있어 현재 남은 번역은 총 72회이다. 홍희복은 72회를 모두 20권으로 나누었는데, 한 회를 다른 권으로 나누기도 하고, 각 회의 시작과 끝을 조금씩 달리한 부분도 있어 원작과 분권을 달리하고 있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내주 형식으로 설명을 첨가하고 있으며, 서사 전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상 생략과 첨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그 중요한 양상을 통해 홍희복의 의도를 살피고자 한다.

1) 생략

첫째, 문화적으로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음식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당오 일행은 군자국에 도착해서 오지화, 오지상 형제와 만나는데 이들 형제는 중국의 문물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자 당오가 아는 대로 대답하겠다고 하여 문답이 이루어진다. 오지화와 오지상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길게 말하고 당오가 대답할 틈을 주지 않는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중국의 장례 풍속, 백일, 돌 잔치, 쟁송, 연회, 매파, 무당, 전족, 사주, 관상 등에 대한 것으로 실은 그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홍희복은 다른 부분은 모두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서 유독 연회 부분의 음식 낭비, 사주와 관상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¹²⁾ 원작에서는 사주와 관상에 비

12) “又聞貴處宴客，往往珍羞羅列，窮極奢華；桌椅既設，賓主就位之初，除果晶冷菜十餘種外；酒過一二巡，則上小盤小碗，-其名南喚‘小吃’，北呼‘熱炒’-……因燕窩價貴，一餚可抵十餚之費，故宴會必出此物爲首。……孟子云：‘魚我所欲，熊掌亦

해 연회에서의 음식 낭비에 관한 부분이 꽤 길게 서술되면서 제비집, 곰 발바닥, 호박 요리 등의 맛과 가격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홍희복이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은 조선의 독자들이 음식의 맛이나 연회의 순서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에 배로 돌아온 당오 일행이 선원들과 제비집과 호박을 끊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생략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제비집과 호박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역진은 음운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품 내에 음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중국과 조선은 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생략된 부분 가운데는 음운이나 글자에 대한 내용이 많다. 당오 일행이 흑치국에서 여학당에 들러 재녀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모시(毛詩)의 시구를 들어 음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번역하면서 예를 생략하고(17회) 반절에 대한 내용도 생략하거나(19회), “여츄여츄”라는 말로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¹³⁾ 그림과 한시 부분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화연> 41회에 소혜약란의 <적금회문

我所欲, 魚則取其味鮮, 熊掌取其肥美。今貴處以燕窩爲美, 不知何所取義; …… 宴會不致奢華, 居家飲食自亦節儉, 一歸純樸, 何患家室不能充足。” <鏡花緣> 上, 74~76쪽, “또한 귀국에서는 연회를 열 때 온갖 산해진미를 한 상 가득 차린다고 들었습니다. 자리가 완비되고 주객이 모두 앉으면 과일과 냉채 10여 종이 먼저 오르고, 술이 한두 차례 돈 뒤 남쪽에서는 ‘소홀(小吃)’, 북쪽에서는 ‘열초(熱炒)’라고 부르는 전채요리가 올라온다지요. …… 제비집은 다른 열 가지 요리를 합한 것만큼이나 비싸서 연회의 으뜸 요리로 꼽힙니다. …… 맹자만 해도 생선도 좋아하고 곰발바닥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요. 생선은 싱싱해서 좋아하고 곰발바닥은 기름져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비집이 귀국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 사람들이 과도한 연회를 삼가고 소박하게 먹는다면 집안이 충족하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화연』 1, 124~126쪽.

13) “희으는 보건더 이 전혀 반절(反切)이니 여츄 ” ” ㅎ여이다.”, 『제일기언』, 318쪽.

선기도>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기언>에서는 그림을 생략한 채 “사면 가
로 둘러보고 네 귀로 보는 법은 붉은 빛으로 썼으니”¹⁴⁾라고 간단히 그림을
설명할 뿐이다. 또 <경화연>에는 인(仁)부터 시작해서 읽을 때의 7언 4구,
흠(欽) 자부터 순서대로 읽을 때 만들어지는 7언 4구, 침(沈) 자부터 거꾸
로 읽었을 때의 7언 4구 등 읽은 방법을 제시하고 시를 실례로 들고 있는데,
홍희복은 인(仁), 흠(欽), 침(沈) 자부터 읽는 방법만 번역하고 실례로 든
시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뒤에 “이는 대체로 보는 법이니 그 대강만 기
록”¹⁵⁾한다고 밝히고 있다. 41회의 내용은 <선기도> 그림을 포함하여 그
읽는 방법, 시구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데 비해 <제일기언>은 이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홍희복이 보기에 이를 생략해도 서사 전개
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번역을 해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
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반복되거나 장황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일부 생략하고 있다. 문
답이 길게 계속되면서 구체적인 예가 많이 등장할 경우 예시의 일부를 생
략하고 있다. 『춘추』와 예법을 논하는 52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체
적인 부분이 생략되었다. 다음은 정정의 질문에 약화가 대답하는 부분으
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츠여츠”라는 말로 생략했다.

亭亭道：「請教正名實呢？」若花道：「如《傳》稱隱爲『攝』，而聖人書之
曰『公』；《傳》稱許止不嘗藥，而聖人書之曰『弑』；卓之立未逾年，而聖人
正其名曰『君』；夷臯之弑既歸獄於趙穿，而聖人書之曰『盾』：凡此之類，豈
非正名實麼？」¹⁶⁾

14) “스면 가호로 둘러 보고 네 귀로 보는 법은 붉은 빛으로 썼스니 ○인(仁) 쓰로부터
시죽호야 순히 넓으면 미슈의 칠언 네 꼭식이요 즈” 히 것구로 넓어 귀” 히 글이 되
니 이 나론 회문(回文)이라”, 『제일기언』, 367쪽.

15) “이는 대체 보는 법이니 그 대강만 기록호노라”, 『제일기언』, 368쪽.

정 〃 왈, “엇지 니르되 명실을 바로게 흐미니잇고?” 약해 왈, “여츠 〃 〃 흐
뉴 그 아니 명실을 바로게 흐미니잇가” 본전이 번거흐믈 썬리기로 대강만
괴록흐니라¹⁷⁾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화의 말도 중간에 “여츠 〃 〃”했다는 말로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2회 전체 분량에 비하면 부분적인 생략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빠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이 부분 번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제일기언>은 재녀들이
과거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예부상서의 집에 모여 잔치하고 놀이를 벌이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여차여차”라는 말로 생략하거나 짧게 요약하고
있다. 70회 비연 부분은 요약 번역되어 있고¹⁸⁾, 72회 거문고 합주 부분도
요약 번역되었으며¹⁹⁾, 바둑 두는 부분은 일부는 짧게 요약 번역되거나²⁰⁾
생략되었다.²¹⁾ 73회 거문고 타는 부분도 요약 번역되었으며²²⁾, 마조 부분에
서는 이름을 생략하고 있고, 화호 놀이 부분도 “여츠여츠”로 생략하고 있
다.²³⁾ 산법(算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내용은

16) 『鏡花宴』, 下, 379~340쪽, “그럼 이름과 실상을 바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정
이 물었다. “『좌전』에서는 노은공이 군주를 대신하는 것을 즉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섭(攝)이라고 칭했지만, 공자는 『춘추』에서 공(公)이라고 했습니다. 『좌전』에서 허지
가 약을 맛보지 않았다고만 서술한 것을 공자는 시(弑)라고 표현했고요. 또 탁(卓)이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못 되어 죽었지만 이극(里克)이 죽인 것이므로 군(君)이라 칭
했습니다. 진영공 이고는 조천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공자는 조순 때문이라고 했습니
다. 이러한 예들이 명실을 바로잡은 게 아닐까요?”, 『경화연』 1, 564쪽.

17) 『제일기언』, 464쪽.

18) 『제일기언』, 649~650쪽.

19) 『제일기언』, 664쪽.

20) 『제일기언』, 671쪽.

21) 『제일기언』, 672쪽.

22) 『제일기언』, 673~674쪽.

23) “이에 휘당사에 니르니 탁금춘과 언금심과 념금풍과 변금운 네 사름이 화호[花湖:

생략하고 있고²⁴⁾ 풀싸움 부분에서도 한두 가지만 번역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전반적인 비중으로 볼 때 이처럼 생략된 부분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서사 전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작가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이여진은 <경화연> 첫 머리에 작품의 의미에 대해 짧게 서술하고 있는데 흥희복은 이를 생략하고 있다.

昔曹大家《女誡》云：“女有四行：一曰婦德，二曰婦言，三曰婦容，四曰婦功。”此四者，女人之大節而不可無者也。今開卷爲何以班昭《女誡》作引？蓋此書所載，雖閨閣瑣事，兒女閒情，然如大家所謂四行者，歷歷有人：不惟金玉其質，亦且冰雪爲心。非素日恪遵《女誡》，敬守良箴，何能至此。豈可因事涉杳渺，人有妍媸，一併使之泯滅？故於燈前月夕，長夏余冬，濡毫戲墨，匯爲一編；其賢者彰之，不肖者鄙之；女有爲女，婦有爲婦；常有爲常，變有爲變。所敘雖近瑣細，而曲終之奏，要歸於正，淫詞穢語，概所不錄。其中奇奇幻幻，悉由群勞被謫，以發其端，試觀首卷，便知梗概。²⁶⁾

골픽에 뉴리]를 보고 것호로 섭경방과 박치홍이 안죽더니 넘금풍이 년망히 불너 왈, “저지 모초아 오시도다. 미지 년호야 지물 견디지 못하니 원리 초혹이라 띄 보기에 너지 못호야 여춘 ” ” 하니이다.” 『제일기언』, 685쪽.

24) 『제일기언』, 700쪽.

25) 『제일기언』, 706~707쪽.

26) 『鏡花緣』上, 1쪽, “조대가는 『여계』에서 여자는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의 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을 왜 반소(班昭)의 『여계』로 시작하는지 어찌면 의아해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 소설이 규방의 소소한 이야기거리와 여인들의 한가로운 심정을 다루지만, 무엇보다 위의 네 가지 덕목을 갖춰 고결한 품성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여계』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다면 가당치도 않았을 일이다. 그러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인물의 용모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달빛과 등불에 의지해 긴 여름을 지나 여유로운 겨울날까지, 부지런히 필묵을 놀려 한 편의 책을 엮어내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취지를 이해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워지고

이는 일종의 서문에 해당하는데, 이여진은 여기서 왜 반소의 『여계』를 인용했을까? 아마도 이여진은 여성의 네 가지 덕목을 구현하지 않는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데 대한 공격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여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말대로 이 작품은 규방의 소소한 이야기이고, 여성들의 한가로운 마음을 다루고 있으며, 『여계』에서 요구하는 여성상을 벗어난 여성 인물들도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여진은 네 가지 덕목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주목한다고 밝히고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더욱 여성스러워지고 아내는 더욱 아내다워질 것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올바른 데로 돌아가고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이여진은 이 작품이 여성들의 일을 다룬 것으로 이야기의 큰 틀은 『여계』에서 말하는 여성의 네 가지 덕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과 달리 실제 내용에서는 여성인 무측천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중국 여성의 전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과거(科擧)를 보며, 다양한 지식들이 여성들을 통해 전개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여진은 이러한 방어막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홍희복은 왜 이 부분을 생략했을까? 홍희복은 이 부분을 생략하는 대신 머리말을 첨가해서 자신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와 번역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머리말을 통해 볼 때 홍희복은 이여진이 서두에서 말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홍희복의 눈에는 <경화연>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세상을 깨닫게 하는 바가 있는 뛰어난 소설로 많은 것을 두루 볼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며, 규방의 소소

아내는 더욱 아내다워지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바뀌야 할 것은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소소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고, 음란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못 꽃들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오는 것에서 시작하니 첫 장을 읽으면 대략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경화연』 1, 문현선 역, 14~15쪽 참조.

한 이야기를 다른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2) 첨가

홍희복은 머리말을 생략하는 대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설명을 첨가하였다. <경화연>에서는 천하 명산 곤륜산을 이야기 하고 바로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산이라고 간단하게 소개한 뒤 바로 『사기』의 기록으로 넘어가는데, <제일기언>은 곤륜산, 서왕모 등에 대한 설명을 첨가한 것이다.

화설 천하 명산에 곤륜산이 으뜸이니 하늘 서편을 진정하여 높이 하늘에 닿으니 왼쪽으로 요지를 임하고 오른쪽으로 취수를 돌렸으며 아래로 약수 삼만 리를 격하고 그 위에 아홉 겹 구슬 성을 두르고 열두 층 백옥루를 세우니 이 과연 낭원 요지의 경루 옥궐이라. 이는 곧 서왕모 거처하시는 곳이니 서왕모의 성은 후씨요, 존호는 구령태묘귀산금모원군이라. 서편 하늘의 진묘한 기운을 오로지 받아서 탄생하니 곤도를 응해 여자의 상인 까닭에 천상 천하, 삼계 십방에 무릇 여자로 신선된 자를 거느려 만물을 양육하는 바요.²⁷⁾

且說天下名山，除王母所住崑崙之外，海島中有三座名山：一名蓬萊，二名方丈，三名瀛洲。都是道路-遠，其高異常。²⁸⁾

27) “화설 천하 명산에 곤륜산(崑崙山)이 으뜸이니 하늘 서편을 진정하여 높피 하늘에 7죽하니 좌편으로 요지(瑤池)를 넘히고 우편으로 취수(翠水)를 둘러서며 으리로 약수(弱水) 삼만리를 격하니 그 우회 아홉 겹 구슬 성을 두르고 열두 층 백옥루(白玉樓)를 세우니 이 과연 낭원(閼院) 요지에 경루옥궐(瓊樓玉闕)이라. 곧 서왕모(西王母) 거처하시는 곳이니 서왕모의 성은 후씨(緱氏)오 존호(尊號)는 구령태묘귀산금모원군(九靈太妙龜山金母元君)이라. 서편 하늘의 진묘(眞妙)한 기운을 오로지 바다 탄성하니 곤도(坤道)를 응해야 녀자의 상(像)인 고로 천상천하(天上天下)와 삼계십방(三界十方)의 무릇 녀자로 신선된 자를 거느려 만물(萬物)을 양육(養育)하는 바요”, 『제일기언』, 27쪽.

28) 『鏡花緣』上, 1쪽, “차설, 천하의 명산은 서왕모가 사는 곤륜산 외에 바다 가운데

1회가 서왕모의 연회를 다루기 때문에 서왕모가 거처하는 곤륜산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배경 설정이다. 그런데 홍희복은 여기에 서왕모가 곤도를 응해서 태어났기에 여자 신선들을 거느리고 만물을 양육한다는 등의 설명을 첨가하고 있다. 다음에 바로 서왕모 연회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서왕모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여성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여자 신선들 이야기를 덧붙인 것으로도 보인다.

무측천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경화연>에서는 “그 제왕은 수염 있는 남자가 아니라 태후에서 보위에 오른 당 중종의 어머니였다.”²⁹⁾를 “문득 슈미(鬚眉) 있는 남지 아니라 민간의 죠고마흔 녀자로 후궁의 썸헛다가 태후의 니르러 인흐야 대위에 오르니 당나라 고종황제의 왕휘요 중종황제의 모휘이니”³⁰⁾라고 설명을 첨가하여 번역하고 있다. 이는 곤륜산, 서왕모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당시 조선의 풍속이나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조선의 예를 첨가하고 있다.

우리 식골도 어린 으히 혁 흙 먹기를 즐기는 지 잇스면 의원이 니르되 비위병이라 감질이라 흐나니 이 분명 무비국 슝으로 환싱흔 비로다.³¹⁾

섬의 봉래산과 방장산, 영주산 세 산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봉래산이요, 둘째는 방장산, 셋째는 영주산이니 모두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산이다.” 『경화연』 1, 15쪽 참조

29) “原來這位帝王並非鬚眉男子，系由太后而登大寶。乃唐中宗之母。” 『鏡花宴』 上, 13면, 『경화연』 1, 33쪽.

30) 『제일기언』, 42쪽.

31) 『제일기언』, 156쪽.

목 마르기를 당하야 우물 푼기와 급흔 씨를 님하야 부쳐의 드리 안음 곳
 흐니 우리네 과거보는 사림의 통환이라³²⁾

그 증이 홀연 얼굴과 일신에 종괴갓치 도다 마춤니 성농하야 나가하되 그
 써런진 후적이 종신토록 업셔지 〃 아니므로 얼굴에 돛는 브랄 닐으되 쏘치
 나다 하며 그 흔적을 속담에 니르되 엷다 하니 얼굴에 그 흔적 업는 즈는
 문조로 니르되 얼굴에 쏘치 엷다 하니³³⁾

첫 번째 예문은 무계국에는 오곡이 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열매를 즐겨
 먹지 않고 흙을 좋아해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원외가 하는 말이다.
 이는 원작에 없는 시골 아이들 이야기를 첨가한 것으로 조선과 관련된 이야
 기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예문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폐해를 말
 하면서 조선의 속담을 첨가한 부분이다. 세 번째 예문은 천연두를 이야기하
 는 부분에서 조선에서 마마 자국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첨가한 것이다. 중국
 소설인지 국내 창작소설인지 어려운 경우, 조선의 속담은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되었다. 그러나 <제일기언>은 중국소설을 번역하면서 조선의 속담을
 넣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 속담 여부로 창작과 번역을 구분하는데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첨가한 부분이다. 가슴이 뚫린
 사람들이 사는 천흉국(穿胸國)을 지나면서 임원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모
 두 종기를 앓아 구멍이 뚫린 것이냐고 묻는다. 다구공이 당초 몇 사람이
 뚫린 것이 자손에게 전해진 것이라 답한다. 그러자 임원외가 가슴에 막대를
 끼워 벼슬하는 사람을 응위해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며 이곳
 에서 벼슬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³⁴⁾ 다음은 거짓말하는

32) 『제일기언』, 159쪽.

33) 『제일기언』, 498쪽.

사람들이 많은 시훼국(豕喙國)을 지나는 대목에서도 홍희복은 원작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지구공은 시훼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옥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세상으로 환생하게 했는데, 징계할 방법이 없어서 죄가 가벼운 자를 모아 돼지부리를 주어 일생 겨와 재강을 먹게 하니 각국의 거짓말 하는 자들은 다 이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시훼국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러자 임원외가 거짓말을 소설과 연관시켜 질문하는데 이는 원작에 없는 부분이다.

원의 왈,

“소제는 언변이 부족하고 아는 비 적으니 과연 헛말은 못허거니와 다만 물화물 미 〽 홀 썩면 부디 혼 푼 비들거슬 두 푼 달나 하니 그는 헛말이 아니 〽 잇가? 당형과 구공은 일즉 글을 널니 보아 문장을 위엿하니 그 문장의 지은 비를 볼진디 전혀 빗노고 보기 조키를 위하야 헛거슬 일컷고 빈 거슬 비유하며 그 중 쇼설 총셔를 짓는 즈는 더욱 헛말이 아니라 허리잇고.”

구공이 쇼왈,

“님형 말슴이 쏘흔 그르지 아니토다. 다만 미 〽 의 갑슬 도 〽 문 군즈국 풍 속이 아닌 전은 면치 못홀 일이니 그 엇지 홀노 거짓말이라 하며 선비의 글 지은 비는 전혀 넷글과 넷말을 의거하야 인증흔 비요 스스로 창출흔 비 아니면 그도 궤를 면홀 거시오 쇼설의 뉴도 비록 허언이라 하니 그 중 쫓을 부쳐 사름을 경계코져 하며 헛말을 늘여 실스를 습으나 마츰니 헛롭지 아니면 그 쏘흔 공으로써 허물을 속허리니 저곳의 환싱흔 즈는 그 거짓말이 쫓히 느 라홀 망히오고 사름을 죽이며 지물을 앗고 부녀를 겁탈흔 뉴니 엇지 일개로 의논허리잇고.”³⁴⁾

임원외는 매매할 때 거짓말을 하니 자신과 매제도 죽으면 시훼국에서

34) 『제일기언』, 258~259쪽.

35) 『제일기언』, 272쪽.

환생하겠다고 하고 나서 갑자기 문장 쓰고 소설을 짓는 것은 헛말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다구공은 소설이 헛말일지라도 사람을 경계하는 바가 있으면 해롭지 않다고 답한다. 이는 서문에서 홍희복이 소설에 대해 한 말과 비슷한 것으로 그가 소설을 짓거나 번역하는 것이 거짓을 짓거나 옳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으며 이런 대화를 첨가함으로써 의미가 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오 일행은 여아국에서 남녀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본다. 원작에는 남녀가 바뀌면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없는데 <제일기언>에서는 이를 궁금하게 여겨 문답하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당오가 남자로 바뀐 여자가 생산도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다구공이 생산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대목이 첨가되어 있다. 또 당오가 중국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면서 “그 〽회 기르기의 쏙오좁 괴로와 엇지허리요” 하고 나서 수염 사이로 연지 바른 입술을 보고 대화하는 내용 등을 첨가하고 있다.³⁶⁾

이외에도 여학당을 찾아가는 부분에서 “이 아니 주식 민드는 방문과 침선하는 법제런가”³⁷⁾라고 하여 여학당의 성격을 여자의 일과 연관시키는 말을 첨가하거나, 목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첨가하고³⁸⁾, “서로 니별홀시 의 〽년 〽 〽야 방인이 참아 보지 못홀너라”³⁹⁾와 같은 고소설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 표현을 더하기도 하며 혼례 때 잔을 깨는 장면이나 소산의 회생 장면 등 원작에는 없는 장면⁴⁰⁾을 첨가하기도

36) 『제일기언』, 330쪽.

37) 『제일기언』, 158쪽.

38) “꽃치 꿩여 열민 열니면 열미 속에 소음이 꿩느니 중국의 면화를 밧히 심거 풀과 꺾치 일 년식 기르느니보다 〽장 편하고 니로오니 진실노 보비의 남기리이다.”, 『제일기언』, 283쪽.

39) 『제일기언』, 312쪽.

40) 『제일기언』, 409쪽.

한다. 또한 한 두 문장으로 공처가인 도적 두목이 아내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장면, 도적 얘기를 하면서 웃는 장면, 과거 부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형벌 부분을 첨가하고 있는데⁴¹⁾, 이처럼 한 두 문장을 첨가하는 예는 이외에도 더 찾아볼 수 있다.

홍희복은 번역하면서 생략하거나 첨가하는 이외에 다음과 같이 다르게 번역한 경우도 있다. 전족을 다룬 부분에서 전족을 시키는 이유를 <경화연>에서는 “하물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음탕한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⁴²⁾라고 하고 군자와 현인이 그것을 금하고 군자들이 나설 때 그 악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기언>에서는 “군자 마땅히 풍속을 금하여 세상 아녀로 하여금 그 부모의 유체를 온전히 함이 조홀너이다.”⁴³⁾라고 번역하여 음탕한 발상 부분을 빼고 부모의 유체를 온전히 한다는 유교적 관점을 보여준다. 또 당오가 군자국 수선촌에서 염량을 만나 무슨 책을 읽느냐고 묻자 염량이 “구경은 모두 읽었으며 지금은 노자와 장자 등을 읽고 있습니다”⁴⁴⁾라고 대답한 것을 “경서를 비훈 후 즉금 스기와 제즈를 넘느이다”⁴⁵⁾라고 바꾸었다. 즉 <노자>와 <장자>를 <사기>와 <제자>로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변개는 유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개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 <제일기언> 번역은 생략, 첨가, 변개를 통해 번역자의 의도가 개입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41) 『제일기언』, 448쪽, 450쪽, 457쪽.

42) “況細推其由，與造淫具何異？”，『鏡花宴』上，87쪽，『경화연』1，129쪽.

43) 『제일기언』，119쪽.

44) “九經業已讀完，現讀《老》、《莊》子書之類。”，『鏡花宴』上，87면，『경화연』1，142쪽.

45) 『제일기언』，129쪽.

3. 〈제일기언〉 번역을 통해 본 홍희복의 번역 인식

전반부의 여행 부분으로 인해 〈경화연〉은 〈걸리버여행기〉에 비견되는 여행소설로 평가되며, 후반부의 문답과 의론 부분으로 인해 재학소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문답과 의론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중국 최초의 남녀평등을 주장한 소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경화연〉을 최초로 연구한 호적은 이여진이 주목한 것은 몇 천 년 동안 소홀하게 여겨진 여성 문제라고 하면서 이여진을 중국에서 최초로 부녀문제를 제시한 사람으로, 〈경화연〉을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여진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남녀에 대한 평등한 대우, 평등한 교육, 평등한 선거제도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경화연〉 저작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⁴⁶⁾ 노신은 책 속에 여자에 관한 논술이 많다고 하면서 호적의 이 말을 인용하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 노신은 이 작품을 재학소설의 항목에 넣고 학술의 집합이요, 문예의 나열이어서 백과전서와 유사하다고 보았다.⁴⁷⁾ 〈경화연〉은 여행 부분에서는 군자국, 양면국, 흑치국, 여아국 등 다양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당시 청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풍자하고, 당오 일행이 견문하면서 음운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고, 무엇보다 여성을 위한 과거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작품이다. 또 전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여아국에서 임지앙이 귀를 뚫고, 전죽을 하고,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자로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삶이 일상적으로 가혹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또한 경서의 주석에서부터 음운, 반절, 산법 등 다양한 지식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지식들

46) 胡適, 『鏡花緣의 引論』, 『胡適文選二集』 卷四, 『中國學術叢書』 第一編 94, 上海書店, 1994, 137~157쪽.

47) 노신, 『중국소설사략』, 정범진 역, 학연사, 1987, 293쪽.

의 주체가 대체로 여성 인물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경화연>은 여성 문제라는 유교 사회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식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소설이 지식을 전개하고 형성하는 장(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 창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화연>의 번역은 소설시뿐만이 아니라 문화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홍희복이 서문에서 밝힌 번역 의도와 번역 인식을 실제 번역 양상과 견주어 가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서문에서 홍희복은 당대 소설 창작과 독서의 경향, 자신이 <경화연>을 번역하게 된 이유 등을 조리 있게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당시 조선의 서책 가운데서 소설의 위치와 소설의 성행, 소설 창작과 소설 이해, 자신의 소설 독서 경험, 당대 소설에 대한 평가, 우연히 보게 된 중국 선비의 작품인 <경화연>에 대한 평가, 번역의 방향과 제목을 <제일기언>이라 한 이유, 소설 이해의 의미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홍희복은 진서와 언문이 다른 점을 지적하고, 언문의 특징으로 말하기 자세하고 배우기 쉬운 것을 든다. 또 이해는 언문을 사용하는 여자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경전이나 <소학>은 지루하고 재미없어 읽지 않고 소설을 즐겨 읽기 때문에 ‘일 없는 선비와 재주 있는 여자’가 고급 소설의 이름난 바를 다 번역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하여⁴⁸⁾ 창작소설은

48) “우리 동국(東國)은 글과 말이 길이 달나 글을 사여 말을 믿들너 혼즉 언문이 쓰로 잇서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이 다른지라. 내법 언문이 말하기 즈세하고 비호기 쉬운 고로 부인 너즈는 언문을 위업하고 문쓰를 비화 너이지 아니하니 이 또한 흠시라. 성경(聖經) 현전(賢傳)과 례기(禮記) 소학(小學)을 비록 언문으로 사여 언히라 일흠 하야 부디 사람마다 비화 본밧고져 하나 보는 지 무미코 지리트 하야 단만 쇼설신화(小說新話)의 허탄괴괴흔 브를 다토티아 즐겨 보니 일 업는 선비와 지조 잇는 너지 고 금쇼설에 일흠는 브를 낫” 치 번역하고 그 밧 허언(虛言)을 창설(唱說)하고 각담(客談)을 번연(繁衍)하야 신괴코 즈미 잇기를 위주하야 거의 누천 권에 지는지라.” 『제

물론 번역소설이 많게 된 원인을 제시한다. 홍희복은 당시의 소설들을 거의 다 열람했는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난신적자, 투부유녀, 규방의 은밀한 수작, 남녀의 설만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부녀가 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경화연>을 제시한다.

홍희복은 <경화연>을 경서, 사기, 기문(奇文), 벽서(僻書) 등을 상고하고, 의론을 통해 분석하고 질문하고 있어 소설 중 뛰어난 것이고 박람하기의 으뜸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경화연>이 백과전서적 지식을 전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홍희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지식들에 대해 ‘이여진이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로서 부인 여자의 이름을 빌고 뜻을 부쳤으며 끝내는 쓸데없음을 밝힌 것’⁴⁹⁾이라고 짧게 언급한다. 이는 <경화연>이 과거에 합격한 재녀들이 벌이는 연화와 놀이가 끝난 뒤 공자들을 중심으로 무측천을 폐위하고 중종을 복위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끝내는 쓸데없다는 말은 여자들의 지식이 쓸데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뜻을 이루지 못한 선비에게 지식이 쓸데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일 없는 선비와 재주 있는 여

일기언, 21쪽.

49) “우연이 근세 중국 선비 지은 바 소설을 보더니 그 말이 족히 사람의게 유익하고 그 뜻이 부디 세상을 찌뎡과져 하야 시속소설의 투를 버셔놓고 별노히 의스를 베퍼 경서와 스기를 인증하고 기문벽서(奇文僻書)를 상고하야 신선의 허무흔 바를 말호되 곳” 이 빙게 잇고 외국에 괴괴흔 바를 말호되 닛” 치 니역리 이셔 경서를 의논호면 의리를 분석호고 스기를 문답호면 시비를 질정호야 천문지리와 의약 복서로 잡기방술에 니르히 각” 그 묘를 말호고 법을 불히니 이 진짓 소설에 대방가요 박남호기의 웃듬이라. 그 지은 사람의 뜻인즉 평성에 비호고 아는 빈 이 7치 너르고 길것마는 마춤 뜻을 날우지 못호야 쓰일 곳이 업는지라. 이에 홀일업셔 부인 녀즈의 일흠을 빌고 뜻을 부쳐 필경은 쓸디 업스를 불히미라.” 『제일기언』, 23쪽.

50) 번역 양상에서 보았듯이 그는 반복되거나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본전이 번거흔를 써리기로 대강만 기록호니라”, “인문의 형용홀 길 업스 분 아녀 음운이 또흔 다른 고로 즈셔이 기록지 아니” 라” 하고 생략하고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쳐여쳐”라는 말로 대신해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인물들 부분을 특별히 더 생략한 것은

자'를 동일한 자리에 놓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선비라도 일이 없으면 즉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재주 있는 여자가 재주를 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식이 쓸데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홍희복은 번역을 통해 지식이나 재주가 쓸데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번거한 바를 덜고[생략], 간략한 곳을 보태며[첨가], 풍속의 같지 않은 곳과 언어의 다른 곳을 고치고 윤색해서 언문으로 번역하고 그 이름을 ‘제일기언(第一奇諺)’이라 했다. 언문소설 중 제일 뛰어난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이다.⁵¹⁾ 이에 대해 누군가가 글을 써서 할 일이 많은데 하필 언문에 종사해서 무엇에 쓰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문장으로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초야에서 헛되어 늙을진대 문장을 써도 쓸데없기는 언문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답한다. 그리고 자신의 언문 작업 즉 소설 번역이 긴 밤과 한가한 아침에 노침을 모시고 병든 아내와 며느리, 딸을 거느려 한 번 보고 두 번 읽어 그 강개하고 상쾌한 곳에 이르면 서로 일컬으며 감탄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즐기면 죽히 쓰임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⁵²⁾

아니다. 전편에 걸쳐 번거롭거나 내용이 반복되면서 서사 전개에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생략한 부분은 거의 전편에 걸쳐 있다. 다만 재녀들이 놀이를 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생략과 요약이 많은데 이는 풍속이 같지 않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51) “이에 그 번거한 바를 덜고 간략한 곳을 보태며 풍속에 갖지 아닌 곳과 언어의 다른 곳을 곤치고 윤색하여 언문으로 번역하여 일홈히되 “제일기언(第一奇諺)”이라 하니 사람이 그 뜻을 못거늘 디답하여 왈, “진서소설 중 삼국지(三國志)를 니르러 제일기서(第一奇書)라 하니 나는 일노써 언문소설 중 제일기담인 고로 특별이 제일기언이라 호노라.”, 『제일기언』, 23쪽.

52) “천고의 문장으로 일홈을 전하는 지 그 몇치뇨? 다행이 스업을 닐워 쓰이는 지 또흔 천만인에 호느이어니와 불행이 백수동창(白首東窓)의 뜻을 일우지 못하고 초야모옥(草野茅屋)에 헛도이 늙을진디 평상에 머음을 썩이고 창즈를 거홀너 짓고 너이던 비 머춤니 창을 브르고 향을 덤혀 업시홀 썩이니 필경 쓸데업기는 님의 언문과 일양이오 니 몸이 임의 쓰이기를 구치 아니민 니 칩이 또 엇지 쓰이기를 구허리요 다만 긴밤과 한가흔

서문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언문의 형용할 길 업슬 분 아녀 음운이 또흔 다른 고로 즈셔이 기록지 아니”라”고 한 데서 드러나는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이다. 홍희복은 문자와 언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투명하게 번역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은 서포 김만중이 <관동별곡>과 전후 <사미인가>가 우리나라의 <이소(離騷)>지만 문자로 베낄 수 없다고 하면서 <관동별곡>을 칠언시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아름답지 않다고 말한 것⁵³⁾과 같은 맥락에 있다. 여기서 베낄 수 없다는 것은 국문을 한문으로 투명하게 번역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번역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만중은 번역시가 원어로 된 시보다 못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홍희복은 번역자로서 번역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조선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한 점이 다르다. 이는 음운이나 반절이 나오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등을 생략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서문을 통해 볼 때, 그리고 실제 번역을 통해서 볼 때 홍희복은 원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을 번역하면 한 편의 뛰어난 언문소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13년에 걸쳐 번역에 임하였다. 생략과 첨가,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작품 전체의 서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홍희복이 원작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보기에 원작 자체의 번다함도 있지만,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대로 옮기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희곡이나 소설 번역의 경우, 조선의 문화를 고려해서 희곡을 소설 형식으로

이층에 노친을 피시고 병척와 주부 녀옴 거느려 홀 번 보고 두 번 넘어 그 강개 상쾌한 곳의 다드라는 서로 일켜려 탄상하고 그 담소회해흔 곳에 다드라는 또흔 일장 환쇼흔 이 속히 쓰인다 홀 거시니 그 엇지 무용이라 흐리요”, 『제일기언』, 23~24쪽.

53) 김만중, 『西浦集 西浦漫筆』, 통문관, 1971, 652~653쪽, 심경호,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664~666쪽 참조.

번역하기도 하고 내용을 첨가, 생략하기도 했다. 홍희복 역시 이러한 번역 태도와 궤를 같이 하여 분권을 달리고 주석을 붙이는 등 심혈을 기울여 한 편의 좋은 언문소설로 만들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희복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번역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편,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번역소설이 당시 소설 문화에 중요한 일부를 이루며, 번역 역시 창작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희복이 번역자로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번역된 <제일기언>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없던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공간에는 다양한 여성들과 기이한 나라의 체험, 여성들의 학습과 교육, 그리고 과거시험, 여성들이 벌이는 즐거운 놀이들, 다양하게 펼쳐지는 지식들이 펼쳐지면서 당시 여성이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작품의 독자가 홍희복의 집안 부녀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홍희복이 집안 부녀들을 독자로 분명하게 상정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다시금 이 작품의 의의를 생각하게 한다. 홍희복이 역자로서 재학 부분에 강조점을 주었다 할지라도 작품 자체는 여성 문제를 환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번역소설은 창작소설 못지않은 문화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이여진의 <경화연>과 그 번역서인 홍희복의 <제일기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과 번역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제일기언>은 <경화

연>을 번역하는 과정에 생략, 첨가, 요약, 변경하면서 제일의 언문소설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직역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변경을 거친 것은 원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원작이 변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번역이라는 것이 언어 상의 문제나 풍속 상의 문제로 그대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서와 달리 소설은 비교적 자유롭게 번역되어 온 관행과 비교해 보면 그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변경을 가한 부분 외에는 직역에 가까운 매우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첨가, 생략, 요약한 부분은 전체 분량에 비하면 많지 않다.

<제일기언>의 번역 양상을 비교한 뒤, 그 서문에 견주어 번역 인식을 살펴본 결과 홍희복은 당대 소설들에 비판적이었으며 <경화연>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번역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설 번역을 통해 당대 소설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홍희복은 번역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함과 동시에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번역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일기언>의 번역을 19세기 소설이 지식을 수용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제일기언>은 주로 재학소설로 이해되어 왔다. 홍희복의 서문 역시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고, 노신의 평가도 이에 일조했다. 따라서 이 작품이 갖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홍희복이 여성이라는 표상을 외면하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박학적 효용과 정통성 확립이라는 주제의식이 강조된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화연> 혹은 <제일기언>의 박학의 주제는 여성들이라는 점이 좀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통성 확립의 문제도 중요한 의식이기는 하지만 무측천이 실시하는 과거시험에 대거 응시하는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희복이 독

자로 생각했던 집안의 부녀들이 이 작품의 무엇에 호응했을까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이 작품의 전반부를 이루는 여행 부분도 규방 바깥으로 나가거나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여성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이 갖는 여성주의적 성격과 여행소설로서의 성격이 박학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요소는 당시 조선소설이 갖지 못한 '외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홍희복은 번역을 통해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이 번역소설로서 <제일기언>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실제 번역 양상을 비교한 결과 홍희복이 여행소설의 성격, 여성주의적 성격, 박학적 요소 중 어느 것을 특별히 생략하거나 첨가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소설 경향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을 선택해서 한 편의 뛰어난 언문소설로 만들고자 했던 홍희복은 당대 소설 비평가이자 번역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진 번역자로서 당시 조선사회에서 번역자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수동적인 문화 수용자가 아니라 외부의 문화로 자국의 문화에 자극을 가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문화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만중, 『西浦集.西浦漫筆』, 통문관, 1971, 1~662쪽.
- , 『서포만필』 하, 심경호 옮김, 문학동네, 2010, 705쪽.
- 이여진, 『경화연』 1, 2, 문현선 역, 문학과지성사, 2011, 1~584쪽; 1~539쪽.
- , 『鏡花緣』 上, 下, 人民文學出版社, 1987, 1~760쪽.
- 정규복·박재연 역,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1~713쪽.
- 김 영, 『조선후기 명청소설 번역필사본 연구』, 學古房, 2013, 1~433쪽.
- 노 신, 『중국소설사략』, 정범진 역, 1987, 학연사, 1~345쪽.
- 민관동, 「번역본 중국고전소설의 발굴과 성과」, 『중국어문학지』 40, 2012, 159~186쪽.
- 서경희, 「〈鏡花緣〉의 여성인식과 〈제일기언〉의 수용방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55~186쪽.
- 이광훈, 「『鏡花緣』의 韓譯本 『第一奇諺』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110쪽.
-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1984, 73~100쪽.
- 정영호, 「〈鏡花緣〉과 한글 역본 〈第一奇諺〉의 비교 연구」, 『中國小說論叢』 26, 278~291쪽.
- 주숙하, 「文人的 主體意識의 再現-〈第一奇諺〉의 翻譯者인 洪羲福을 中心으로」, 『중국소설논총』 35, 2011, 283~301쪽.
- , 「翻譯 작품 속 유머와 諷刺」, 『중국어문학논총간』 30, 2011, 163~184쪽.
- 胡適, 「鏡花緣의 引論」, 『胡適文選二集』 卷四, 『中國學術叢書』 第一編 94, 上海書店, 1994, 1~780쪽.

ABSTRACT

Translator's Perspective in *Jeilgieon*(第一奇諺),
the Translated Work of *Kyeonghwayeon*(鏡花緣)

Kim, Kyung-mi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translated work, *Jeilgieon*(第一奇諺) in Chosun dynasty whose original book is *Kyeonghwayeon*(鏡花緣) and to infer the views of the translator, Hong Hui-bok(洪羲福, 1763~1830) on translation. The original book, *Kyeonghwayeon* is a traveling novel in its form and it presents encyclopedic knowledge through characters' dialogues and new thoughts on women's ability through various kinds of female characters. Compared with the original work, the translated work, *Jeilgieon* shows some changes. It leaves out the redundant parts, adds new sentences of explanation, and makes some adaptation where the descriptions of customs and culture are way too different from native ones. These changes are mentioned in the translator's preface, which shows the translator Hong Hui-bok's thought that the original work cannot be perfectly translated and some adaptations are indispensable reflecting the context of native language and culture.

Besides this view of translation, the translator's preface suggests his criticism on the contemporary novels in his times as well. According to him, novels of his times deal with the similar stories which are not worth reading for decent wives and daughters. Considering this, he seemed to present his translation as an alternative of novels in his times. That's why he entitled his translation as "Jeilgieon" which means the best work among literary works. Clearly he seemed to give new stimulation for both writers and reading audiences of novels of those days.

Key Words *Jeilgieon*(第一奇諺), *Kyeonghwayeon*(鏡花緣), translator, translation, recognition of translation, Hong Hui-bok(洪羲福)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9
게재확정일 : 2015. 12. 15